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English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Vol. 21 No. 995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February 21 2025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한인 사회, '유길준 갤러리' 재개관 기금 마련에 한마음

4월 5일, 기금 마련 행사 개최...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공연 선보여 보스톤 한인들, 한국 문화 보존과 전파 위한 역사적 순간에 동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 사회가 한마음으로 한국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4월 5일 오후 6시 내틱 엘크스 로지(Natick Elks Lodge)에서 '유길준 갤러리' 개관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는 한인 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국문화를 후원하는 행사다.

유길준 갤러리는 피바디에섹스박물관(PEM)의 한국관으로, 미국 내에서 한미 양국의 우정과 한국의 역사, 예술, 문화를 조명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유길준은 보병사로 보스톤을 방문해 1년여간 보스톤에 유학한 최초의 한인 미국 유학생이다. 2003년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PEM)에 개관됐

〈전체 기사 읽기〉

던 한국관이 2012년 폐관된 후, 15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갤러리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인 예술인들, 유길준 갤러리 위한 특별 무대 마련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특히 보스톤 한인사회의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공연이며, 한국학교 학생들에서부터 80세의 할머니들까지 함께 참여한다.

2024년 3월 보스톤 지역에서 결성된 '보스톤 라라랜드(Boston Lala >>10면으로 계속



1월 12일 한인커뮤니티PEM후원회를 결성한 모임. 이날 논의됐던 주요 의제가 4월 5일 개최하는 기금 마련 문화행사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시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해 아플런더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디지털 신문의 기사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과 지면보기에서 이제는 기사 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PDF면에서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들은 해당 기사의 오른쪽 칼럼 위에 **전체기사 읽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기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2025년 신년 하례식 및 의장 표창 전수식 개최

유현경 부간사, 이임하는 홍순복 부총영사 대통령 표창 받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회장 한문수)는 2월 9일 보스턴 한인교회 ECC채플에서 2025년 신년 하례식 및 의장(대통령)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늘 수고가 많은 오은희 간사와 준비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2025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는 보스턴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보스턴 민주평통을 담당하며 노고가 많았던 홍순복 부총영사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부임지에서도 강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장 표창을 받은 홍순복 부총영사는 "지난 3년여 동안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와 좋은 관계 속에서 즐겁게 일한 결과, 귀한 의장 표창을 받고 떠나게 되어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평통 위원들과 함께 일해 왔지만, 보

스턴 협의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스턴협의회 유현경 부간사에 대한 의장 표창 전수식도 진행됐다. 유현경 부간사는 "지난 10여 년간 호주에서부터 평통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변호사로서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표창 전수식 후에는 조미나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이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운명" 연주를 선보였고, 이한나 부회장의 한국 전통무용 특별공연이 이어져 신년 하례식과 표창 전수식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마지막으로 평통 위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재봉 위원은 "오랫동안 평통 위원으로 봉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며 즐겁

〈전체 기사 읽기〉

게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활력 넘치는 2025년을 기대하며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는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교육분과 위원장인 정문철 박사가 주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4월 9일에는 박상원 수석 부회장과 이석원 부회장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아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미 양국 전문가 의견 교류 및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하버드 어린이병원(Folkman Auditorium, Harvard Children's Hospital, 320 Longwood Ave. Boston, MA 02115)에서 열리며, "차세대와 함께하는 한미 교류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스턴의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포스트닥 연구원 등 젊은 층이 함께하는 세션도 마련되어




평통 신년하례식에 참여한 평통위원들(사진 위), 한문수 회장으로 부터 대통령상을 전달받은 유현경 부간사(사진 좌측), 홍순복 부총영사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럼 moon.econ@gmail.com으로 문의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면 된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1)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 구정훈
아동부/youth 전도사 : 최인엽
청년부 전도사 :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처음부터 끝까지 격식 있고 활기찬 네트워킹의 장, MIT하버드 갈라

보스턴 한인 대학원생들의 특별한 만남, MIT x Harvard Gala 2025 후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MIT대학원 한인학생회(KGSA)와 Harvard 한인학생회(HGKS)가 연합으로 주최한 갈라 파티가 참가자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올해 2월 8일 MIT 미디어 랩에서 개최된 갈라에는 MIT, Harvard 한인 대학원생, 포스트닥 연구원, 동문, 그리고 보스턴 지역의 한인 대학원생과 직장인들 400 명이 참여했다.

보스턴 지역의 다양한 대학원생들의 네트워킹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매년 2월에서 4월 중 진행하는 이 갈라는 평균 400명으로 인원을 한정하고 있다. 올해 12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참여자 중 대학원생이 70-80%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LG 디스플레이, 삼성생명, Rothea, 하이트진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간단한 핑거푸드와 오픈 캐쉬바가 준비되어 있고 따로 특별한 순서 없이, 테이블 위에 토크 주제

를 적어 놓아 관심있는 곳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간단한 갈라 소개, 후원사 소개와 경품추첨도 진행됐다. 포토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

갈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격식 있고 활기찬 네트워킹의 장이었다. 오랜 동문들과 매년 갈라를 계기로 모여 동문회와 같은 소통을 한다. 보스톤에서 취직 한 동문들은 그의 친구를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며 새로운 인연들을 맺었다. 같은 과 선배들은 현재 공부와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학문적 이야기를 나눴다. 또 최근 보스톤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직장인이나 연구원 등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고 멀리서는 뉴욕, 뉴저지, 그리고 켄터키주 등에서도 갈라에 참석하기 위해 보스턴을 찾아왔다.

현재 MIT박사생인 조모씨는 “보스턴 지역의 반가운 지인들을 다시 만나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새로운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전체 기사 읽기〉

뜻깊은 소셜 이벤트였다.” 고 소감을 전했고, 뉴욕에서 방문한 직장인인 최모씨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 쉬지 않고 소통했다는 게 신선했어요!” 하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갈라는 다양한 사람과 학문적 교류는 물론 새로운 만남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 보스턴의 대표적인 행사로 12년동안 자리 잡은 이유다. 갈라는 보스턴을 넘어 미국 동부 한인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MIT 졸업생이자 현 보스턴 직장인인 한모씨는 “작년 갈라와 장소는 같았지만 좀 더 정돈된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행사 오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좋았고, 이전에 비해 보스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재밌



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MIT 대학원 한인학생회 임원 이정수씨는 “이번 갈라는 후원사 변경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MIT와 하버드 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행사 준비부터

진행까지 힘써 주신 학생회 여러분과 따뜻한 응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참석자, 후원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21st - FEB. 27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LITTLE CLAM KALGUKSU NOODLE SOUP

How about warming up this winter with a comforting bowl of clam kalguksu made with fresh clams from H Mart? 추운 겨울 날씨, H Mart 신선한 바지락으로 만든 따뜻한 바지락 칼국수 한그릇 어떠신가요?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1.49 LB	Garlic 마늘 5 PCS/PKG \$1.99	Kabocha 단호박 LB \$0.9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29.99 BOX	Korean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2.99 LB	Ginger 생강 LB \$2.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3\$2 FOR EA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3.99 FOR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WHOLE PIECE/LB \$3.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7.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3.49	Marinated Thinly Sliced Boneless Pork Shoulder Butt -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Monkfish Tail 아구 꼬리 LB \$2.99	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5.99	RI WANG Frozen Fish Ball 리왕 피쉬볼 ALL VARIETIES LB \$4.99
Frozen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LB \$2.99	SUHYUP Frozen Seaweed Fulvescens 수협 매생이 LB \$4.99

SMART CARD MEMBER ONLY

OTTOGI Snack Ramen Noodle Soup Cup 스낵면 소컵 \$7.99 2.18 OZ X 6 EA/BOX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0.99 16.9 FL OZ X 6 EA/PKG
HARU HARU 100% Pure Sesame Oil 하루하루 참기름 \$16.99 56 FL OZ	PULMUONE Juicy Dumplings with Pork & Vegetables 풀무원 육즙등뼈 만두 \$9.99 21.2 OZ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14.99	PALDO Bibim Men Oriental Style Noodles 팔도 비빔면 \$4.99 4.58 OZ X 5 EA/PKG	OTTOGI Jin Ramen Cup Noodle Soup 오투기 진라면 소컵 MILD/HOT \$7.99 2.29 OZ X 6 EA/PKG	SEMPIO Yondu Liquid Seasoning Sauce 샘표 연두 ORIGINAL \$5.99 11.28 OZ	BEYOND THE OCEAN Fried Fish Cake 바다너머 부산어묵 \$3.99 1.76 LB
CHUNG JUNGONE Pork Loin Cutlet 청정원 참작 수제 등심 돈가스 \$7.99 12 OZ	FOODCELL Wide Vermicelli Noodles 푸드셀 납작당면 1 LB \$2.99	PULMUONE Dried Seaweed 풀무원 진국미역 3.52 OZ \$4.99	YOODONG Silkworm Pupa in Sauce 우동 폭벵기 번데기탕 SPICY/SOYBEAN PASTE \$2.99 9.87 OZ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허니파우더 \$8.99 3 LB
PRINCE OF PEACE Ginger Chews 프린스 오브 피스 생강 캔디 ASSORTED/8 OZ \$2.99	Milk Classic Rice Snack 밀크 클래식 쌀과자 \$4.99 8.46 OZ	HELLO HOME Closed Toe Comfy Slippers 헬로홈 포그니 세로줄 슬리퍼 MEN - BLUE/BROWN WOMEN - GREEN/BEIGE \$4.99 ←\$6.99 PAIR	Hansil Flower Pillow 꽃넝쿨자수 원형 베개 GREEN/BLUE \$23.99 ←\$29.99 EA	KING STAR Rectangle Egg Pan 킹스타 사각 계란구이팬 LARGE (7.78 X 10.23 X 1.25 INCH) \$22.99 ←\$28.99 EA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치매 예방, 마음챙김, 공동체 연결... 종이접기로 함께해요

시민 참여형 예술단 '동백의 향기', 종이접기 마음챙김 워크숍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민 참여형 예술단 '동백의 향기' (단장 이혜정)가 오는 3월 8일(토) 오후 2시, 브루클라인 도서관 허너맨 홀에서 <종이접기 마음챙김 워크숍 (Origami Meditation Workshop: The Whispering Wall - The Power of Folding & Words)>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종이접기를 통해 명상과 자기 성찰을 경험하고, 공동 예술 프로젝트 '위스퍼링 월 (Whispering Wall)'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종이접기는 단순한 공예를 넘어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창의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반복적인 손동작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마음챙김 (mindfulness) 명상과 창의적 글쓰기를 결합한 종이접기를 경험하며, 종이 한 장을 희망과 성장의 상징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워크숍에서 완성된 종이접기 작품과 메시지는 '위스퍼링 월' 이라는 공동 예술 프로젝트에 설치된다. '위스퍼링 월' 은 참가자들의

〈전체 기사 읽기〉 조용한 속삭임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공간으로, 희망과 용기, 성찰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이 쌓이며 공동체의 목소리를 형성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동백의 향기' 는 2023년 학술·문화단체 월든 코리아(Walden Korea)가 설립한 예술 단체다. 이혜정 단장을 중심으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공동체 연대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백의 향기' 는 음악, 무용, 공예 등 예술적 표현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정서적 치유를 지원하며, '위스퍼링 월' 프로젝트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려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월든 코리아 대표 양수연 씨는 "위스퍼링 월은 종이접기를 마음챙김과 창의적 글쓰기로 연결해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표현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치유의 예술"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이접기 명상 워크숍' 은 13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종이접기 나비

가능하며, 한정된 자리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일시: 2024년 3월 8일 (토) 오후 2시 - 4시

장소: 브루클라인 도서관(브루클라인 시청 옆) 3층 허너맨 홀 (Brookline Village)

주소: 361 Washington St, Brookline, MA

대상: 13세 이상, 성인 및 시니어 환영

사전 등록 및 문의: info@waldenkorea.org / 617-849-8433

웹사이트: www.whisperingwall.org

문의: 시민 참여형 예술단 '동백의 향기' 이혜정 단장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3월 1일 제5차 정기 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오는 3월 1일(토) 뉴햄프셔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최고봉인 워싱턴 마운틴(Mt. Washington, 6,288ft)으로 제5차 정기 겨울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에서 A조는 기상 조건이 허락하고 참가자의 체력 및 장비가 완비된 경우 왕복 9.2마일 코스에 따라 워싱턴 마운틴 정상에 오를 예정이다. 만약 날씨가 좋고 트레일 상태가 양호하면, 나머지 A조는 왕복 6.8마일 거리의 먼로 마운틴(Mt. Monroe) 등반을 계획하고 있다. B조와 C조는 왕복 6.2마일의 레이크 오브 더 클라우드즈(Lake of the Clouds)까지 산행할 예정이다. 산행 시간은 약 6~8시간이며, 난이도는 4.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참가자는 크램폰(아이젠), 헤드랜턴, 스패츠, 배낭, 등산 스틱, 방풍 재킷, 우의, 장갑, 모자, 식수, 간편 중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등산화 착용이 필수다.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착용은 금지되며, 기능성 드라이핏 의류를 권장한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산악회는 "겨울 산행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이젠을 꼭 지참하고, 해가 짧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헤드랜턴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가능하다면 고글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행 당일 집결지는 뉴햄프셔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RT93 Exit 2) 보스톤 익스프레스 버스터미널(10 Raymond Avenue, Salem, NH)이며, 오전 6시 30분까지 집결해야 한다. 참가비(차비)는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2월 27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시 희망 조, 집결 장소, 차량 동승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공식 카페(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날 카페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 사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 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eb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co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슨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ristina@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i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폴리진 978.454.2043 lsh@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 617.447.059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유 617.780.7839 kayden.peter@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헤 978.866.3248 jinahe@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주 401.535.3387 yehyunju1@gmail.com
 사라 유 617.638.5787 sara.yu@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진 617.638.6973 kangsojin1@gmail.com	 파사 송 213.563.0997 michael.park@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헤 413.507.1402 mikihe@bostonpremierrealty.com	 손장배 617.913.3589 s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677.9387 heon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leeyoungsoon@bostonpremierrealty.com	 박복숙 781.898.1214 bsook@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510.1182 heon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은근 617.643.8723 jeon@bostonpremierrealty.com	 헤건기 604.611.0182 heongi@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03@gmail.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ang 248.448.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38.960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6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hanna@bostonpremierrealty.com	 재이그 김 781.956.0409 jei@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is@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하버드 연구비 300만 달러, '극좌파 이념' 이유로 상원 조사 대상에

미 공화당, NSF 지원금 축소 압박... 학계 반발 확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받은 3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연구비가 '급진적 좌파 이념' 및 '신(新)마르크스주의 계급 투쟁 선전' 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됐다고 하버드 크립슨이 2월 19일 보도했다.

테드 크루즈(공화 · 텍사스) 상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무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국립과학재단(NSF) 연구과제 3,400건 이상을 지목해, 총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이 보고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기관들에게 "불법 DEI(다양성 · 형평성 · 포용성) 정책"과 인종 및 성별 기반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지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지난 주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연구비 삭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NSF와 국립보건원(NIH)은 지원금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연구비 심사를 동결한 상태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급진 좌파의 '깨어있는(Woke) 넌센스' 를 박살 내고 있다"며 "DEI 정책은 연구를 오염시키고, 과학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미국 사회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하버드 연구진이 수행하는 14개 프로젝트가 문제시됐다. 이들 연구는 NSF로부터 최소 2

만 5,000달러에서 최대 6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다. 조사 대상에는 교육용 로봇 키트 개발, 디지털 학습에서의 성별 차이 연구, 하버드 산림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여름 환경과학 연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NSF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으로 과학 및 공학 분야 연구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예산은 의회 승인 하에 운영되며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하버드는 2024 회계연도에 5,600만 달러의 NSF 연구비를 받았으며,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는 공화당이 하버드 및 기타 대학에서 '불법 DEI 정책'의 조사 대상으로 삼는 타겟 중의 하나가 됐다.

앞서 1월, 하버드 연구부총장 존 H. 쇼는 NSF의 새로운 연방 지침에 대응해 연구진이 받은 NSF 연구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NSF가 연구비 수혜자들에게 "DEIA(다양성 · 형평성 · 포용성 · 접근성) 원칙을 활용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하버드 연구진은 이번 리스트가 연구의 실질적 평가 없이 악의적인 선정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고학 교수 크리스티나 G. 위리너는 자신의 NSF 연구비가 마야 문명의 사회적 친족 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것이라며, "내 연구가 '깨어 있는 이념'이나 '신마르크스주의 계급 투쟁 선전'으로 분류된 이유

〈전체 기사 읽기〉

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고대 아메리카 문명의 정치 구조와 동맹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분류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나노스케일 시스템 센터 소장 윌리엄 L. 윌슨도 자신의 연구가 DEI 프로그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NSF 지원을 받은 그의 '퀀텀 누아르(Quantum Noir)' 컨퍼런스는 양자 과학 분야에서 소외된 연구자들을 주요 연구자들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DEI가 아니라 인력 개발 프로그램"이라며, "국가 기술의 미래에 중요한 신기술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윌슨은 또한 NSF가 특정 키워드나 내부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연구과제를 임의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NSF 연구비는 연구의 공공적 영향을 설명하는 성명서를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연구 제안서에는 다양성, 형평성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이 연구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리너 교수는 "크루즈 의원은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과학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 조사에서 진짜 낭비는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보건 컨설팅 기업 JSI, 직원 절반 해고...USAID 지원 중단 여파

글로벌 보건 사업 위기...백신 · 영양 프로그램 축소 불가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에 본사를 둔 국제 공중 보건 컨설팅 기업 존 스노우(John Snow, Inc., 이하 JSI)가 최근 직원 절반을 해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개발처(USAID) 예산을 동결하면서 주된 자금줄이 끊긴 탓이다.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회사 대변인은 "미국 및 해외 사무소에서 약 1,100명의 직원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해고는 지난주 단행됐으며, 직원들은 12일, 수요일 통보받은 후 14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JSI는 정부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감염병 대응, 영양 개선, 보건 교육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 비영리 단체다. 특히 말라리아, HIV 같은 감염병 예방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JSI 예산의 약 80%가 USAID에서 나오던 만큼, 이번 지원 중단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스톤 본사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직원은 "자금 지원이 끊긴 즉시 백신 접종과 영양 프로그램을 멈춰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했던 파키스탄, 잠비

〈전체 기사 읽기〉

아, 에티오피아의 프로젝트들이 대규모 축소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JSI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3,775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중 800명 이상이 미국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번 감축 이후 보스톤 지역의 정확한 인력 규모는 불확실하다.

해고된 직원은 "국내 프로그램들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HIV 감염인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다양성 · 형평성 · 포용성(DEI) 사업이 불안정하다"며 "모든 직원들이 언제 추가 해고가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USAID 예산 동결은 JSI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지역의 다른 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버몬트주의 한 컨설팅 회사는 최근 76명을 해고했으며, 연방 계약에 따른 미지급 비용만 3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 주의 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는 여성 및 신생아를 위한 의료 공급품 주문이 취소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FEB. 20TH - FEB. 27TH, 2025



BURLINGTON & QUINCY STORES ONLY

**Unagi Kabayaki
 Frozen Roasted Eel
 통통배 우나기**



~~REG. \$19.99~~

\$12.99

VALUE PACK
 (9oz + 6oz Pack)

RYO AMORE PACIFIC

**샴푸 세트 112 ml
 추가증정**

**Hair Care Shampoo Set
 아모레 러 샴푸 세트
 16.23 FL OZ + 3.78 FL OZ/BOX**



~~REG. \$23.99~~

\$13.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보스톤 한인 사회, '유길준 갤러리' 재개관 기금 마련에 한 마음

▶▶1면에 이어서

Band' 가 7080 명곡을 연주하며 향수를 자극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K-팝의 댄스 그룹 'UMBRA' 도 무대에 오른다. 2023년 가을 결성된 이들은 한인회 주최 김치페스티벌에서 경연대회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들이다. K-팝의 역동적인 무대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보스톤 한인 노인회의 '난타 공연' 은 박진감 넘치는 리듬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은 2세들이 연주하는 한국 전통 음악이란 점에서 관객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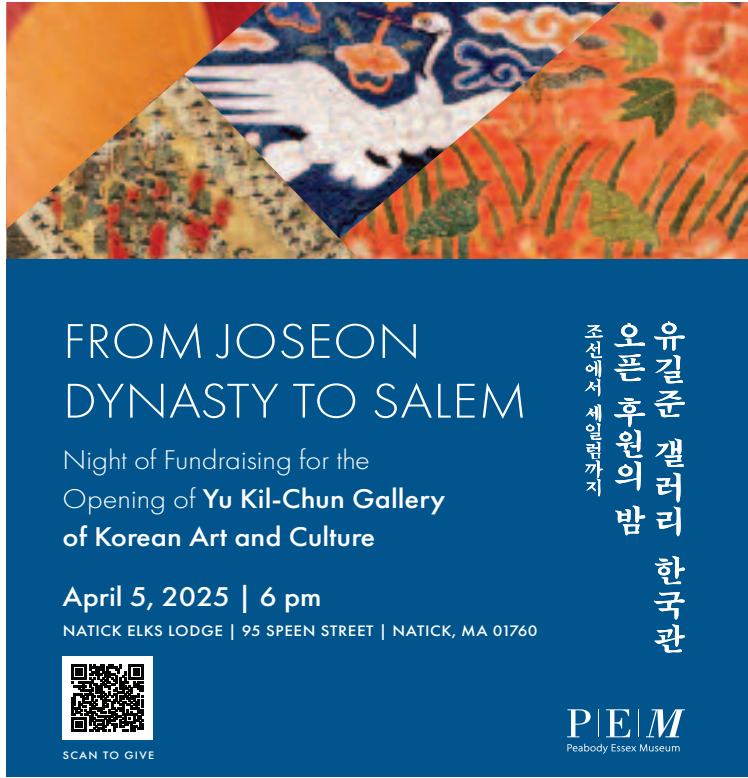
한국 전통 무용가 이한나씨는 '입춤(Ipchum)' 공연을 통해 한국 무용의 우아함과 깊이를 선보인다. 그녀는 보스톤 한국 전통 예술 아카데미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 전통 예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김진혜씨의 오토하프 (Auto Harp) 연주는 감미로운 선율로 행사장을 채우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인 사회, 갤러리 개관 위한 적극적인 참여 필요

유길준 갤러리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미국내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갤러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2일 브루클라인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열린 모임에서 한인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



여하는 '한국 커뮤니티 PEM 후원회(회장 양미아)' 를 구성했다. 이후 한국 커뮤니티 PEM 후원회는 각 종교단체 방문을 통한 협조 요청,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비롯한 한국학교의 모금함 설치 운영 등을 추진했다.

또한 후원회의 홍보활동으로 한국의 연합뉴스와 LA 미주 중앙일보도 한인사회의 모금운동을 적극 보도하며 힘을 보탤다. 한인사회의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유길준 갤러리 한국관 개관 후원의 밤-조선에서 샬럼까지> 행사는 후원회 활동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유길준 갤러리는 오는 5월 15일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본관 2층 웰드홀(Weld Hall)에서 공식 개관한다. 기존 일본관이 위치한 공간의 2층을 활용해 조성되며, 약 100여 점의 한국 유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보스톤 한인 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 전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작은 기부와 관심이 모여 유길준 갤러리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스톤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다.

오는 4월 5일 기금 마련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인사회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행사: 유길준 갤러리 한국관 개관 후원의 밤-조선에서 샬럼까지

일시: 4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20면 광고 참조)

장소: 내틱 엘크스 로지(Natick Elks Lodge)

참가비: 일반 \$120, 시니어 \$80, 학생 \$60

매사추세츠 1월 주택 시장, 거래량·가격 동반 상승

MA주 단독주택 중간가격 \$585,000, 1월 기준 역대 최고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매사추세츠주의 주택 시장이 2025년 1월에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단독주택과 콘도의 거래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단독주택 시장 역시 호조를 보였지만, 콘도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인 워렌 그룹(The Warren Grou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매사추세츠의 1가구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58만5,000달러로 전년 동월의 55만 달러 대비 6.4% 상승했다. 거래량 역시 2,626건으로 전년 동월 2,403건 보다 9.3% 증가하며 주택 시장의 활기를 반영했다.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거래량도 증가했다. 단독주택 거래량은 2,6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으며, 1월 콘도 거래량은 1,159건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콘도미เนียม 중간 가격은 53만 달러로 4.5% 올랐다.

워렌 그룹의 캐시디 노튼 미디어 담당 디렉터는 "올해 첫 달부터 단독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한 시장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콘도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19% 넘

게 증가하는 등 구매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레이터 보스톤의 주택 시장도 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단독주택과 콘도 시장의 흐름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보스톤 대도시 권역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1,2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고, 중간 가격은 75만 달러로 8.7% 올랐다. 반면, 콘도 거래량은 810건으로 20.9% 증가했으나, 중간 판매 가격은 6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했다.

올해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매사추세츠 주택 시장은 봄철을 맞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튼 이사는 "1월의 높은 거래량 증가는 주택 재고 증가의 신호일 수도 있으며, 이는 2025년 봄 시장에서 매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혔다.

한편,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부동산 판매현황을 중점적으로 집계하는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업연합(GBAR)은 2025년 들어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주 정부, 주 전역 1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어포더블 하우스 개발 지원

12개 지역 14개 프로젝트 통해 1,100여 개 어포더블 하우스 유닛 조성
어포더블 하우스 신청 계획 있는 한인들, 해당 타운 미리 진출 계획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 전역의 어포더블 하우스 개발을 위해 총 1억 5,800만 달러의 저소득 주택세금크레딧(LIHTC)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금은 12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14개 어포더블 하우스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총 1,138세대의 어포더블 하우스 유닛이 새롭게 공급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2023년 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법안에서 명했다. 이 법안에는 저소득주택 세금크레딧(LIHTC) 한도를 2천만 달러 증액해 연간 6천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로 더 많은 어포더블 하우스 개발 지원이 가능해졌다.

힐리 주지사는 "높은 주거 비용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 행정부는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 전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비용이 낮아지고, 이번 어포더블 하우스 지원금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는 시니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조 사업, 유휴 공장을 활용한 주택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어포더블 하우스가 포함됐다. 특히 전체 신규 유닛의 95%는 중위소득(AMI) 60% 이하의 저소득층 및 시니어를 위

한 것이며, 이중 32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극빈층 가구에게 배당된다.

이번 지원금은 연방 및 주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됐다.

연방 4% LIHTC 2,330만 달러, 연방 9% LIHTC 600만 달러, 주정부 LIHTC: 3,560만 달러,

그리고 주택청(Executive Office of Housing and Livable Communities, EOHLC) 보조금 9,350만 달러 등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The Brian J. Honan Apartments in Allston-Brighton,

올스턴-브라이트 지역사회 개발공사(Allston-Brighton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주관

기존 공공주택 50세대를 개·보수하여 재활 및 어포더블 하우스로 제공

The Brooke House at Olmsted Village in Boston,

2라이프 개발(2Life Development) 주관

총 127세대의 어포더블 노인아파트 건설

Warren Hall in Boston,

Schochet Companies 및 Allston-Brighton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주관

총 35세대 중 33세대에 어포더블

〈전체 기사 읽기〉

렌트, 이중 8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Phase 1 of the Campello Redevelopment in Brockton,

브록턴 주택청 (Brockton Housing Authority) 주관

총 144세대의 저소득 노인아파트 공급,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포함)

Blanchard 1 and 2 in Cambridge, B' nai B' rith 주관

55세 이상 성인 어포더블 하우스 총 110세대 공급

Asbury Commons in Hamilton, Harborlight Community Partners 주관

총 45세대 어포더블 하우스 중 29세대는 중위소득 60% 이하, 16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

Harbor Vue in Hyannis, WinnDevelopment 주관

총 120세대 공급, 이중 70세대는 중위소득 60% 이하, 16세대는 30% 이하

Phase two of Mariner Mill in Lawrence, sponsored

Lawrence Community Works 및 The Community Builders 주관

폐공장을 활용해 총 76세대의 어포더블 주택 건설

The New Bedford Scattered Sites project,

Cruz Companies 주관

83세대 어포더블 하우스 중 73세대, 이중 20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



Cranberry Commons senior housing in Plymouth,

플리머스타운 주관

총 62세대 60세 이상 노인용 주택, 이중 13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

El Centro senior housing in Salem,

North Shore Community Development Coalition 주관

48세대 시니어 주택, 중위소득 60% 이하, 이중 8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

Merrick Park Apartments adaptive reuse in Springfield,

First Resource Development 주관

총 62세대 어포더블, 중위소득 60% 이하, 이중 8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

St. Ann' s Senior Village in Wayland

Planning Office for Urban Affairs 주관

총 60세대 어포더블 주택 공급, 중위소득 50% 이하인 시니어, 이중 15세대는 중위소득 20% 이하 시니어

Lakeside Apartments in Worcester

Tremont Development Partners 및 Worcester Housing Authority 주관

총 116세대 어포더블 하우스 건설. 모든 주택은 중위소득 60% 이하, 이중 87세대는 중위소득 30% 이하.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매사추세츠 천연가스 요금 급등... 주 상원의원들, 요금 완화 촉구

소비자 부담 줄여야... DPU, 가스 회사들과 요금 조정 논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주의 천연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주 상원의원 22명이 주 공공전기·가스사업부(DPU)에 요금 조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해 지난 16일 발송한 이 서한에는 최근 승인된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와 에버소스(Eversource)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특히 에버소스를 집중적으로 지목하며, 올겨울 난방비가 27%나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DPU는 이러한 요금 조정을 다시 평가하고, 에버소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급업체가 소비자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PU는 18일 성명을 내고, 주 내 모든 가스 회사들과 고위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 대상에는 에버소스의 두 개 서비스 지역인 구 엔스타 가스(NStar Gas)와 구 컬럼비아 가스(Columbia Gas)도 포함됐다. DPU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 항목 중 가스 배송 요금(delivery charge)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도 이번 논란에 개입했다. 힐리 주지사는 17일 DPU에 별도의 서한을 보내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즉각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힐리 주지사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겨울철 기온 하락이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DPU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요금 상승을 억제하

고 내년 겨울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원의원들의 서한과 달리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DPU가 승인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콜럼비아 가스 지역의 평균 주택 난방비는 30%, 엔스타 가스 지역의 요금은 23% 올랐다. 내셔널 그리드의 경우 13%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전보다 급격히 오른 요금 청구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DPU는 일반적으로 5월과 11월 연 2회 천연가스 공급 요금을 조정한다. 하지만 공급 비용이 상하 5% 이상 변동하면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겨울 한파와 뉴잉글랜드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인해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1일부로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11월 요금보다 6~7% 추가 인상됐다.

의원들은 이러한 급등세의 배경에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에버소스 측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난방비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에버소스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정부와 의회는 단순한 지원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에너지 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향후 유사한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모기지의 두 축 패니메이·프레디맥 민영화 가능성, 영향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의 대표적인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민영화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두 기업이 시장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미국 모기지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후원 기업(GSE,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이다. 연방주택금융국(FHFA)이 관리하는 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대출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MBS같은 금융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모기지 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마크 칼라브리아 전 연방주택금융국(FHFA) 국장은 "우리의 모기지 금융 시스템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잘 작동하지만, 경기 침체 시에도 그런가?"라며 "나는 경제 전반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지만, 침체시에는 결국 납세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민영화를 지지했다.

두 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미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증금 1천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두 기업의 이익을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납세자들의 구제금융 비용을 상환받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많은 차입자들이 모기지를 갚지 못해 주택을 압류당했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80만 채의 주택이 압류됐다.

무디스(Moody's)의 수석 경제학

자마크 잔디는 "정부의 개입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총 3,010억 달러를 재무부에 상환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정부 감독 아래 놓이면서 주식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2019년,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익 회수 정책을 종료하며 이들의 민영화 가능성을 다시 열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감독을 철회할 경우, 두 기업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칼라브리아 전 국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제약은 자본 부족이었다"며 "당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부채비율은 1,000:1에 달해 거의 자본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 기업은 정부 후원기업(GSE)으로 분류돼 있지만, 원래 패니메이는 1938년 정부 기관으로 출범한 후 1968년 민영화됐고, 프레디맥은 1970년 의회법에 의해 민간 회사로 설립됐다.

문제는 민영화 이후의 모기지 금리 변동이다. 잔디는 "정부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보증이 사라지면 모기지 금리가 60에서 90베이시스포인트(0.6-0.9%p)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칼라브리아 전 국장은 "과거처럼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이 있어 변화가 없을 것이며, 민영화가 오히려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며 반박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는 미국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정부의 감독을 유지할 것인지, 민영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New Nest Construction LLC

뉴네스트 건축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매사추세츠 경제 단체, 연방 기금 중단 대비 주 의회에 경쟁력 강화 입법 요구

재계, 세금 개혁·예산 지출 절제·의료 보험 비용 완화 등 요구 주 예산 증가 속도 조절 및 연방 지원 불확실성 대비 강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주의 경제 단체들이 새로운 주 의회 회기에 맞춰 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재계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연방 지원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큰 지출 증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세 재개혁과 규제 완화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주 예산 관련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Massachusetts Taxpayers Foundation)의 더그 하우게이트 회장은 “주의 장기적인 재정 건강을 위해 예산 증가율을 3~4%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가 제안한

6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힐리 주지사 측은 이 증가율이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10억 달러 규모의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수입에 대한 지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힐리 주지사의 예산안은 교통, 주택, 교육, 보육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하우게이트 회장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 MBTA(매사추세츠 교통국) 운영 적자의 90%를 향후 3년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백만 달러가 배정됐다”며 “주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금 개혁 및 재정 안정 요구

경제 단체들은 주정부의 세금 정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사추세츠 산업협회(AIM)의 브록 톰슨(Brooke Thomson) 회장은 지난해

단기 자본이득세가 8.5%로 인하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매사추세츠는 세금 면에서 타 주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M은 자본이득세를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소매업 협회(Retailers Association of Massachusetts)의 존 허스트(Jon Hurst) 회장도 “재산세와 급여세를 인하해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사추세츠예산정책센터(Mass-Budget)의 피네아스 백센달 정책국장은 “연방 지원이 줄어들 경우, 다른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다국적 기업이 역외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 주 예산에 수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연방 지원이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주 정부가 비상 기금(rainy day fund)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긴축이 현실화된다면, 비상 기금을 활용해 재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건강보험 부담 완화 요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건강보험 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허스트 회장은 “대기업은 연방법에 따라 더 저렴한 보험 옵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주정부의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더 포괄적인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전문 의료 서비스와 고가의 신약이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예: 메디케이드)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에게 더 유연한 보험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스트는 소규모 기업들의 의견보다 전문의, 전문 의료 제공자, 대형 제약사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 그 결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규모기업의 직원들은 의무화에 묶여 있다. 대기업처럼 비용을 절감하고 주정부의 규제 대신 오바마케어(ACA)를 따를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고비용으로 인한 인구 유출 우려

매사추세츠 재정연합(Massachusetts Fiscal Alliance)의 폴 크레이니 대변인은 “높은 비용이 주민과 기업의 이탈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정부의 정책이 비용 절감보다는 추가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 주거

〈전체 기사 읽기〉

지원(right to shelter) 정책이나 해상 풍력 산업 보조금 확대 같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레이니는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정책이 주 경제에 실질적인 개선은 가져오지 못했다”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 및 장기적 정책 추진

매사추세츠 산업협회는 지난해 유권자들이 졸업 요건에서 MCAS 시험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예산정책센터는 주정부의 ‘커먼웰스 케어즈 포 칠드런(Commonwealth Cares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주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예산정책센터의 첼시 세다니(Chelsea Sedani) 정책국장은 “의료 커뮤니티 칼리지 정책이 도입된 이후 학생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립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가 추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다니는 ‘베이비 본드(Baby Bonds)’ 도입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정과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에게 출생 시부터 정부 지원 계좌를 개설해, 18세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베이비 본드는 인종 간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안토인 드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매사추세츠 두 대학, 최상위 연구기관으로 선정

UMass 로웰 · WPI, 미국 최고 수준 연구대학 'R1' 등급 획득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유매스 로웰(UMass Lowell)과 우스터 공과대학(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WPI)이 최근 카네기 재단(Carnegie Foundation)과 미국 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로부터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매사추세츠에서 'R1' 등급을 받은 10번째, 11번째 대학이 됐다. R1 등급은 미국 내 4년제 대학 중 약 7%만이 보유한 명예로운 연구기관 지위로, 연간 연구개발(R&D) 지출이 최소 5,000만 달러 이상이며, 평균적으로 70개 이상의 연구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만이 자격을 얻는다.

WPI의 연구·혁신 부총장 보그단 베르네스쿠(Bogdan Vernescu)는 "이번 지정은 지난 10년간 대학의 연구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교수진, 학생, 직원, 행정진 모두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자랑스럽고 기쁜 순간"이라고 밝혔다.

카네기 재단과 미국 교육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지원 축소 계획이 이번 2025년 연구기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향후 등급 선정 과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네기 분류 시스템 책임자인 무슈타그 건자(Mushtaq Gunja)는 "이 같은 정책은 근시안적"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연구가 대학에서 이뤄지는 만큼, 연구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UMass 로웰, 10년간 연구역량 확장

UMass 로웰은 이번 R1 등급 획득을 위해 지난 10년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 측에 따르면

최근 연구비 지출이 1억 2,0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연간 약 150개의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 대학은 리스트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연구소(Rist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and Energy), 뉴잉글랜드 로봇 실험 및 검증 센터(New England Robotics Validation and Experimentation Center), 로웰 우주과학기술센터(Lowell Center for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레이 시온-UMass 로웰 연구소(Raytheon-UMass Lowell Research Institute) 등 13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UMass 로웰 총장 줄리 첸(Julie Chen)은 "매사추세츠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연구 역량을 기업과 인재가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이라며 "이번 지정은 대학이 지속해서 연구력을 강화해 온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WPI, AI · 로봇공학 등 신기술 연구 주도

WPI 역시 R1 등급을 받으며 최상위 연구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학 측은 연구의 핵심 분야로 ▲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 로봇공학 ▲ 첨단 소재 및 제조 ▲ 생명공학 및 바이오 기술 등을 꼽았다.

앤드류 시어스(Andrew Sears) WPI 학장은 "우리 교수진은 과학, 공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들"이라며 "이번 R1 등급 획득은 WPI가 연구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대학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 등 11개의 대학이 R1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이번 선정이 지역 산업과 연구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내 R1 등급 연구대학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

브랜다이스 대학교(Brandeis University)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노스이스턴 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텡스대학교(Tufts University)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매사추세츠 대학교 로웰(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우스터 공과대학(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hsb@bostonkorea.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2) 직장인 은퇴 준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라스베이거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기대하며 도박장에 모인다. 도박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지만, 베팅한 즉시 돈을 땀는지 잃었는지를 바로 안다. 만일 도박 베팅을 한 다음 그 결과를 일주일 후에 알려준다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라스베이거스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주식 투자도 일반인은 어떤 기업에 투자한 후 주가가격을 수시로 확인한다. 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내리지만, 어떤 기업의 경영, 제품, 재무제표, 등은 주가가격처럼 자주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마음은 조급하다.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마음이 도박하는 마음과 비슷하며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 필요하다.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돈이 불어나기 위해서 즉돈이 복리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 달에 \$585씩 한 해에 \$7,000 (2025 IRA)를 10% 이자로 투자한다

고 가정하자. 10년 후는 약 \$12만 불, 20년 후는 \$42만 불, 그리고 30년 후는 약 120만 불로 불어나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하면 20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나서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직장인의 대부분은 수입에 맞추어 생활하기에 여윌 돈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은 분명 흘러가고 언젠가는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다. 은퇴한 후 부부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 절세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미래의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분명 받을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은퇴 투자 마련하는

순서를 열거해 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ing)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 한다고 하자. 한 직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칭해 준다. 이것이 진짜로 공짜 돈(Free Money)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401(k) 다시 투자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한다. 2025년 기준으로 \$23,500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불에서 \$23,500을 투자하면 \$76,500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한다.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7,5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 \$31,000까지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 유예를 받으며 투자된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멩거는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 매수와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Waiting)에 있다'고 조언했다. 물가가 오른다, 경제 침체가 온다, 전쟁이 난다, 이자율이 오른다, 등을 걱정하며 투자하지 않았으면 2023년 24% 그리고 2024년 23%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누구나 재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천천히 부유해지기는 매우 쉽다' 고 언급한 것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6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문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호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두나미스 신학수련회 및 영성집회를 마치고...

감동, 감동이었다. 호성기 원로 목사님(필라안디옥교회)을 모시고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두나미스 신학교(원) 2025년 봄학기 신학수련회 및 영성집회'를 뉴저지 소재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가졌다.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다시 가슴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었다.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각들이 있다. 이러한 오감(the five senses)에는 시각(sight), 후각(smell), 촉각(touch), 청각(hearing), 미각(taste)이 있다. 이러한 오감들은 눈(eye), 귀(ear), 혀(tongue) 등 특별한 장기(organ)에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영성집회)를 통해 새로운 영성과 각자에게 맡겨진 '선한 청지기'가 되길 기도하며 도전이 되었다.

토요일 내린 눈으로 산 속에 있는 라마나웃 기도원 가는 길은 월요일 이른 아침 빙판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전도차보다 먼저 강사 호성기 목사님의 차가 앞서와 있었다. 오르기 힘든 빙판길에서의 애쓰던 시간이 '귀한 추억'으로 하나 더 쌓였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린다. 일흔을 넘기신 원로 목사님을 뵈며 하나님이 쓰

시는 목사님은 이러시구나 싶은 마음에 감동이 절로 나왔다. 첫날부터 강의 시간은 짧았다. 1시간 30분의 강의가 네 차례가 되었으니 원로 목사님의 일정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착각이었다.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원) 학장 김희복 목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광선 찬양사역자(전도사)의 찬양이 시작되고 모두의 뜨거움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다. 이어서 호성기 원로 목사님(필라안디옥교회)의 제1강은 믿음(마 17:14-21) 피스테우스(πιστεωσ, piste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강의는 신학생들과 사역자(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에게 깊이 파고 들었다. '예수쟁이'로 살아야 한다. '예수에 미쳐야 산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닌 '예수가 믿어줍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재차 말씀해 주신다.

제2강은 청지기(일꾼) 오이코노모스(οἰκονομοσ)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라'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 강조해 주신다. 그것은 '정체성'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임을 다시 또 일깨워 주신다.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의 옛 언약의 일꾼들이 아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고후 3:6)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청지기 오이코노모스(οἰκονομοσ)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κρυπτος)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예수그리스도를 맡겨 주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을 담당하여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이어서 충성 피스타스(πιστισ, pistis)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다. 우리에게 신앙이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가는 일 말이다. 제3강의 주제는 '동반함으로' (아 2:10-17), 제4강은 '쏟뿌리를 태워 버림으로' (히 12:14-17), 제5강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1', 제 6강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2', 제 7강은 '습관의 능력'으로(눅 22:39-46) 이렇게 긴 강의는 아쉬움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일꾼'이란 단어는 원어로 '휘페레테

스(ὑπερέτης)'이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다. 당시 큰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계층의 사람을 말한다. 노예 중에서도 최하층, 주로 전쟁 포로나 반역자, 우리말로 격군이라고도 한다. 그 유명한 영화 '벤히'에 노를 젓는 노예들의 실상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물론 전투함의 비극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노를 젓는 노예는 쇠고랑에 묶여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생애를 마치게 된다. 바울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노예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배 밑창에서 죽도록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호성기 원로 목사님(필라안디옥교회)을 모시고 '두나미스 신학대학(원) 학장: 김희복 목사' 신학생 수련회 및 영성집회를 통해 '성육신 하신 하나님(Incarnation)' 육체(Car) + 안에(In) + 태어나는 것(Natus)을 합성한 단어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뜻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예수)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게 한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청년 실업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나는 예의 바르다는 사실을 최대한 은밀하게 말해야 한다. 오늘밤에는
(오은, 이력서 중에서)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사회의 대단한 화두로 등장한지 오래되었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 결혼은 물론 연애도 할 수 없다고 전한다. 누가 변변한 직장도 없는 청년에게 딸을 주겠느냐 싶은 거다.

취업난. 취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라 정의 할수 있겠다. 살다보면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중에 하나라 여길 수도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어 맞짱 붙어야 하는 어려움중에 하나라는 말이다. 주저앉

자하니, 앞길이 구만리이다. 하긴 주저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다. 절망하지 말라고 하기엔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할말이 궁하다.

직장은 영어로 잡(job)이다. 기독교 성경에서 욥도 표기는 Job이라 하는데, 철자가 같다. 잡은 보수를 받고 하는 직업을 말한다. 취업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지속해서 직장에 나가는 일이다. 덩달아 취업난이 계속되는 모양인지, 욥이 취업난으로 고난과 역경에 처했던 건 아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다던가. '저것은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올라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

이 뉴스는 2008년에 나왔다. 아니 통계라 해야겠다. 당시에 유행하는 우스개 소리라 했는데, 읽어 내릴 적에 마음은 편치 않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 (45세면 정년퇴직), 88만원 세대(월급으로 88만원을 받는 20대 비정규직), 오륙도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젊은 층). 압권은 취직이라 해야하나. 취직대신 시집가기라는 거다.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제목도 이력서이다.

밥을 먹고 쓰는 것.
밥을 먹기 위해 쓰는 것.
한 줄씩 쓸때마다 한숨 나는 것.

나는 잘났고,
나는 둥글둥글하고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70%가 자궁에 혹을 가지고 있다. 비만일 땐 더 커질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로 한 자궁 근종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 은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여성에게 생기는 양성종양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궁근종이다. 일종의 혹으로 양성종양인 암과 달리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대부분 30~40대 가임기 여성에게 발병해 임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이은주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3일 “성인 여성의 20~25%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초음파 검사를 해

보면 약 7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 이라고 말했다. 아직 자궁근종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초경 이후 생기기 시작해 가임기에 주로 발병하고 폐경 이후에는 크기가 작아지는 점으로 미뤄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 성장인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약 30%의 환자에서 월경 과다, 골반통,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없다 보니 산부인과 검진 중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하거나 혹의 크기가 만져질 정도로 매우 커졌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궁의 바깥쪽 벽에 생기는 ‘장막하근종’은 주변 장기를 압박해 배뇨 장애나 복부 압박감 등을 일으킨다. 자궁근종 안 깊숙이 발생하는 ‘근층내근종’은 자궁 자체의 크기가 커져

월경 과다를 유발한다. 모든 자궁근종을 치료할 필요는 없다. 크기가 4cm 이하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6개월~1년 주기의 경과 관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근종이 커지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면 수술이나 시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근종이 크고 개수가 많다면 개복 수술을 해야 할 수 있고, 자궁내막에 가깝다면 피부 절개 없이 자궁경부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는 자궁경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적 치료 중 하나인 근종절제술은 생식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젊은 환자가 주로 받는다. 수술 후 약 40%에서 임신이 되지만 자궁벽이 약해져 출산 시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 있으며 근종이 재형성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근종이 다발성일 땐 자궁절제술을 받기도 한다. 자궁의 크기가 임신 12주 크기 이상으로 커졌거나 월경 과다를 동반

한 커다란 점막하근종이 있을 때 고려된다.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주기적 관리와 적절한 치료만이 해법이다.

“자궁 근종”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란?

창간 20주년을 맞은 보스톤코리아는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의 영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3주 동안 주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 글쓰기 선생님과 매일 정해진 글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편의 기사 또는 에세이 글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글을 완성도 높게 수정합니다. 이 글들은 선생님들의 2차례 피드백을 받아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 수정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한차례씩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해 수정과정을 지도받습니다. 완성된 글들은 la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출판되어 게재됩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성장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층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조선에서 세일럼까지
유길준 갤러리
오픈 후원의 밤
한국관



SCAN TO GIVE

PE|M
Peabody Essex Museum

Artist in Korea, Fan (taegeu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ffi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태극선 (부분), 18세기. 종이, 옷칠, 나무. 1900년경 Edward Sylvester Morse 기증. E4439. 쌍학흉배 (부분), 19세기. 비단에 자수. 1899년 Gustavus Goward 기증. E9785. 활옷 (부분), 18세기 후반. 비단에 자수, 종이, 면, 양모, 금속. 1927년 기증. E20190.F. 평안감사 환영도 (부분), 19세기. 비단에 채색. 1927년 W.C. Endicott와 George A. Peabody의 후원으로 박물관 구입. E20262.A.

